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28권 제5호, 2026
<연구논문>

pISSN 1229-2060
eISSN 2287-5743
Korean Fashion & Text. Res. J.
Vol. 28, No. 5, pp.553-560(2026)
https://doi.org/10.5805/SFTI.2026.28.5.553

중년 남성의 지각 체형에 따른 드레스 셔츠 맞음새 및 사이즈 선택에 관한 연구

김현숙†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A Study on Dress Shirt Fit and Size Selection According to Perceived Body Type Among Middle-Aged Men

Hyunsook Kim†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Marketing,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ress shirt wearing and fit characteristics among middle-aged men to provide basic data for shirt pattern development. Fit discomfort and overall fit satisfaction were analyzed based on age and perceived body type. Size selection and suitability were analyzed through perceived body typ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43 men aged 35–49 years. Frequency analysis and the Kruskal–Wallis test were also performed. Most participants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an average or abdominal obesity body type and noted the greatest body shape changes in the abdominal area. Regular fit shirts were preferred to slim-fit and oversized-fit shir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it discomfort across body areas among age groups, wherea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overall fit satisfaction. In contrast, perceived body typ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t discomfort across various body areas and size selection. Participants with a perceived muscular body type showed relatively high mean scores for fit discomfort in the chest, shoulder, and underarm areas. Participants with a perceived abdominal obesity body type showed relatively high mean scores for fit discomfort in most body areas, particularly the abdomen, alongside challenges in size selection and a preference for custom-made shirts. The abdominal area was most frequently identified as requiring design improv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ge and perceived body type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aspects of shirt fit evaluation. Perceived body type and body-area-specific fit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hirt patterns for middle-aged men.

Key words: dress shirt(드레스 셔츠), middle-aged men(중년 남성), perceived body type(지각 체형), fit (맞음새), men's wear(남성복)

1. 서 론

과거 중년 남성의 트렌디한 가치소비를 뜻하던 '영포티(young forty)'라는 용어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 패션 스타일을 희화화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Kang, 2026).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중년 남성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30대 중반 이상의 중년 남성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패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중년 남성의 패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이들은 패션 시장에서 높은 구매력을 갖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Go, 2026; Ra, 2025). 이러한 소비 현상과 더불어 비즈니스 캐주얼 문화가 확산되면서 드레스 셔츠는 정장뿐만 아니라 캐주얼 스타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남성복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Jun, 2013; Seong & Yi, 2016). 또한 출근복으로 빈번하게 착용되며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능성과 심미성뿐만 아니라 착용 시 편안함과 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맞음새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셔츠에 관한 선행연구는 디자인, 착용 실태, 패턴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남성의 셔츠 착용 실태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셔츠 구입 시 맞음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성 셔츠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맞음새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 Jang, 2012; Seong & Yi, 2016). 또한 셔츠 구매 시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체형을 고려한 사이즈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Jun, 2013). 따라서 남성용 셔츠 설계 시 착용자의 체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맞음새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체형 특성을 반영한 셔츠 패턴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Sung and Yang(2006)은 중년 남성의 체형을 숙인 체형, 젖힌 체형으로 나누어 셔츠 원형을 개발하

†Corresponding author: Hyunsook Kim
E-mail: kimhs9373@gmail.com
©2026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KFTRJ).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였고, Seong and Kim(2020)은 노년 비만 남성의 체형을 유형화하여 셔츠 원형을 개발하였다.

남성 체형은 30대 이후부터 신체적 노화에 따라 점진적인 체형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와 가슴둘레는 감소하는 반면, 배둘레와 허리둘레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40대에는 BMI와 허리둘레가 증가하여 복부 비만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로(Lee et al., 2013; Sung & Yang, 2006), 이러한 체형 변화는 기성 셔츠의 치수 체계와 실제 착용자의 체형 간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셔츠 착용 시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과 사이즈 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Jun(2013)은 복부 비만 남성들이 셔츠 착용 시 가슴, 허리, 진동 부위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부 비만이 두드러지는 중년 남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한 셔츠 설계 및 패턴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셔츠 관련 연구는 키 집단에 따른 셔츠 착용 실태와 맞음새 연구(An & Lee, 2018a), 셔츠 패턴 개발 연구(Suh, 2016; Sung & Yang, 2006), 맞춤 셔츠 업체 현황 및 치수 체계 연구(An & Lee, 2018b)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한 중년 남성의 소비 성향과 체형 특성을 반영한 셔츠 착용 실태, 맞음새 만족도,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는 실제 인체계측자료를 활용한 체형 분석이나 패턴 개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자신이 인지하는 체형에 따라 셔츠 맞음새와 사이즈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자신이 인지하는 체형은 실제 체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의복의 맞음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Roh & Song, 2017), 자신이 인지하는 지각 체형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지각 체형을 마른형, 보통형, 비만형으로 구분하여 의복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Cho, 2005), 남성의 경우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 발달 정도도 체형 인식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하였다(Ralph-Nearman & Filik, 2018). Jun(2013)은 상체 형태에 따라 역삼각형 체형, 보통 체형, 배나온 체형으로 지각 체형을 구분하여 기성 셔츠의 맞음새를 평가하였으며, 지각 체형에 따라 겨드랑 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ha(2019)는 중년 남성의 지각 체형을 주관적 평가를 통해 숙인 체형, 상체 발달 체형, 복부 돌출 비만 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의복 디자인 및 패턴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각 체형이 비만 정도뿐만 아니라 상체 형태 및 근육 발달 등 다양한 체형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5~49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셔츠의 착용 및 맞음새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지각 체형에 따른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성 셔츠 디자인에서 개선이 필요한 신체 부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 남성의 셔츠 착용 및 맞음새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중년 남성용 셔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드레스 셔츠 착용 실태 및 맞음새,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35~49세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Google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6년 5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안내하고,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됨을 고지하였다. 대상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최종 143부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직업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5~39세 54명(37.8%), 40~44세 51명(35.7%), 45~49세 38명(26.6%) 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106명(74.1%)으로 가장 많았다.

2.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선행연구(An & Lee, 2018a; Jun, 2013; Seong & Yi, 2016)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개 문항, 지각 체형 및 체형 변화 2개 문항, 셔츠 착용 실태 2개 문항, 셔츠 착용 불편함 및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 9개 문항,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 6개 문항, 셔츠 디자인 개선 요구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각 체형은 선행연구(Cha, 2019; Cho, 2005; Jun, 2013; Ralph-Nearman & Filik, 2018)를 참고하여 슬림형, 보통형, 근육형, 복부비만형 및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셔츠 맞음새 및 불만족,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Table 1. Age and occupation of the participants

Item		Frequency(N)	Percent(%)
Age	35~39 years	54	37.8
	40~44 years	51	35.7
	45~49 years	38	26.6
	Total	143	100.0
Occupation	Office worker	106	74.1
	Self-employed	11	7.7
	Professional	13	9.1
	Public official	5	3.5
	Others	8	5.6
	Total	143	100.0

2.3. 자료 분석

조사대상자의 셔츠 착용 실태 및 맞음새는 연령 및 지각 체형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연령 집단은 35~39세(n = 54), 40~44세(n = 51), 45~49세(n = 38)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각 체형에 따른 분석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6명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슬림형(n = 13), 보통형(n = 66), 근육형(n = 13), 복부비만형(n = 45)의 총 13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셔츠 착용 실태 및 기성 셔츠 디자인 개선 요구 부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체형 변화가 느껴지는 신체 부위는 복수응답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 지각 체형에 따른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 및 셔츠 사이즈 선택·적합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정규성을, Levene 검정을 통해 등분산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등분산성 가정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 분석 자료가 5점 Likert 척도의 개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 체형별 집단의 표본수가 불균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모수 검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적용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였으며, Bonferroni 보정 방법으로 다중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조사대상자의 지각 체형과 체형 변화가 느껴지는 신체 부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보통형'이라고 인식한 응답이 66명(4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비만형'이 45명(31.5%), '슬림형'과 '근육형'은 각각 13명(9.1%), '잘 모르겠다'는 6명(4.2%)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형 변화가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복부 부위가 111명(7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슴 부위 31명(21.7%), 어깨 부위 19명(13.3%), 목 부위 15명(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팔 부위와 엉덩이 부위는 각각 12명(8.4%), 등 부위는 7명(4.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체형을 보통형 또는 복부비만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체형 변화는 주로 복부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셔츠 착용 실태

셔츠 착용 실태는 셔츠 착용 빈도와 주로 착용하는 셔츠 핏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셔츠 착용 빈도는 '주 3~4회 착용'과 '주 1~2회 착용'이 각각 37명(2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매일 착용'이 32명(22.4%), '거의 착용하지 않음'이 21명(14.7%), '한 달에 1~2회 착용'이 16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착용하는 셔츠 핏은 레귤러핏(클래식핏)을 착용한다는 응답이 86명(6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슬림핏이 28명(19.6%), 오버핏이 19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명(7.0%)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셔츠를 비교적 자주 착용하고 있으며, 몸에 밀착되는 슬림핏이나 여유로운 오버핏보다는 활동성과 착용 적합성을 고려한 레귤러핏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체형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위로 복부를 인식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복부 부위의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레귤러핏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년 남성이 활동성과 착용 편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2. Perceived body type and body shape changes of the participants

Item		Frequency(N)	Percent(%)
Perceived body type	Slim	13	9.1
	Average	66	46.2
	Muscular	13	9.1
	Abdominal obesity	45	31.5
	Not sure	6	4.2
	Total	143	100.0
Body areas with noticeable body shape changes (Multiple responses)	Neck	15	10.5
	Shoulder	19	13.3
	Chest	31	21.7
	Abdomen	111	77.6
	Arm	12	8.4
	Back	7	4.9
	Hip	12	8.4
	Total	207	144.8

Percentag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N = 143);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able 3. Shirt wearing habits of the participants

Items		Frequency(N)	Percent(%)
Shirt wearing frequency	Almost every day	32	22.4
	3~4 times a week	37	25.9
	1~2 times a week	37	25.9
	1~2 times a month	16	11.2
	Rarely	21	14.7
	Total	143	100.0
Preferred shirt fit	Slim-fit	28	19.6
	Regular-fit (Classic-fit)	86	60.1
	Oversized-fit	19	13.3
	Not sure	10	7.0
	Total	143	100.0

Table 4. Shirt fit satisfaction and discomfort according to age group

Item	Age group			Levene F(p)	Kruskal–Wallis H
	35~39 years(n=54) Mean(S.D)	40~44 years(n=51) Mean(S.D)	45~49 years(n=38) Mean(S.D)		
Discomfort around the neck	3.28(1.14)	3.29(1.22)	3.24(1.05)	.460(.632)	.134
Discomfort in the shoulder area	3.28(1.16)	3.02(1.09)	2.92(1.00)	1.369(.258)	2.578
Discomfort across the chest	3.33(1.15)	3.06(1.16)	3.03(0.89)	2.849(.061)	2.656
Discomfort in the abdominal area	3.63(1.10)	3.25(1.00)	3.34(1.07)	.497(.610)	3.381
Discomfort in the underarm area	3.09(1.01)	2.94(1.09)	3.11(0.95)	.525(.593)	.573
Discomfort during arm movement	3.24(1.05)	3.04(1.11)	3.37(0.97)	.146(.865)	1.671
Shirt button gaping	3.15(1.12)	2.96(1.20)	3.26(0.98)	.625(.537)	1.275
Poor sleeve length fit	3.17(1.11)	3.12(0.99)	3.03(0.97)	.583(.560)	.514
Overall shirt fit satisfaction	3.30(0.84) a	3.24(0.82) ab	2.84(0.82) b	.014(.986)	7.160*

Different letters (a, b)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pairwise comparisons with Bonferroni adjustment.
*$p \leq .05$.

3.3. 연령에 따른 셔츠 착용 불편 및 맞음새 만족도

연령 집단에 따른 셔츠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분석 결과, 모든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셔츠 착용 시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는 연령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H = 7.160, $p \leq .05$). 사후 검정 결과, 35~39세(M = 3.30) 집단이 45~49세(M = 2.84)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45~49세 집단의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셔츠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불편함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3.4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착용 불편 및 맞음새 만족도

중년 남성의 지각 체형을 슬림형, 보통형, 근육형, 복부비만형 4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분석 결과, 소매 길이 부적합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각 체형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둘레(H = 14.230, $p \leq .01$), 어깨(H = 24.179, $p \leq .001$), 가슴(H = 16.842, $p \leq .001$), 복부(H = 33.833, $p \leq .001$), 겨드랑(H = 12.255, $p \leq .01$) 부위의 착용 불편함과 셔츠 단추 벌어짐(H = 20.211, $p \leq .001$), 팔 움직임(H = 20.301, $p \leq .001$) 불편함에 있어 지각 체형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슬림형 유형은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다른 지각 체형에 비해 셔츠 착용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깨 부위의 착용 불편함(M = 1.85)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 결과 보통형(M = 2.98)과 근육형(M = 3.46), 복부비만형(M = 3.51)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보통형 유형은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 중간 수준의 평균을 보였다. 특히 복부 부위의 착용 불편함은 평균 3.32점으로 다른 신체 부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복부비만형(M = 4.09)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복부 부위의 착용 불편함이 복부비만형뿐만 아니라 보통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근육형 유형은 목둘레, 어깨, 가슴 및 겨드랑 부위의 착용 불편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셔츠 단추 벌어짐과 팔 움직임 불편함에서도 복부비만형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가슴 부위(M = 3.77)와 겨드랑 부위(M = 3.38)의 착용 불편함은 지각 체형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어깨 부위(M = 3.46)의 불편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복부 부위 착용 불편함은 평균 2.92점으로 복부비만형(M = 4.0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육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복부보다는 가슴, 어깨 및 겨드랑 부위를 중심으로 착용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근육형의 가슴, 어깨 및 겨드랑 부위 착용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상체 형태의 발달 특성이 셔츠의 부위별 맞음새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복부비만형 유형은 가슴과 겨드랑 부위를 제외하고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슬림형과 보통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복부 부위(M = 4.09)의 착용 불편함은 다른 지각 체형보다 통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셔츠 단추 벌어짐(M = 3.60)과 팔 움직임(M = 3.71) 불편함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부비만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부 부위의 착용 불편함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5. Shirt fit satisfaction and discomfort according to perceived body type

Item	Perceived body type				Levene F(p)	Kruskal–Wallis H
	Slim (n = 13) Mean(S.D)	Average (n = 66) Mean(S.D)	Muscular (n = 13) Mean(S.D)	Abdominal obesity (n = 45) Mean(S.D)		
Discomfort around the neck	2.77(1.01) b	3.06(1.08) b	3.38(1.26) ab	3.71(1.12) a	.421(.738)	14.230**
Discomfort in the shoulder area	1.85(0.69) b	2.98(1.00) a	3.46(1.05) a	3.51(1.08) a	1.608(.191)	24.179***
Discomfort across the chest	2.46(1.13) c	2.95(1.04) bc	3.77(0.83) ab	3.49(1.06) a	.506(.679)	16.842***
Discomfort in the abdominal area	2.31(1.11) c	3.32(0.98) b	2.92(1.12) bc	4.09(0.76) a	2.036(.112)	33.833***
Discomfort in the underarm area	2.23(1.17) b	2.94(1.00) ab	3.38(0.96) a	3.29(0.97) a	.286(.836)	12.255**
Discomfort during arm movement	2.46(1.05) c	2.95(1.01) bc	3.54(1.13) ab	3.71(0.90) a	.678(.567)	20.301***
Shirt button gaping	2.23(1.30) c	2.88(1.06) bc	3.38(0.96) ab	3.60(0.99) a	.945(.421)	20.211***
Poor sleeve length fit	2.69(1.18)	3.06(0.94)	3.31(1.25)	3.22(1.06)	1.617(.188)	3.019
Overall shirt fit satisfaction	3.23(0.93)	3.29(0.84)	3.00(0.71)	2.98(0.89)	.815(.487)	5.405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pairwise comparisons with Bonferroni adjustment.
*$p \leq .05$, **$p \leq .01$, ***$p \leq .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각 체형 유형에 따라 셔츠 착용 시 신체 부위별 불편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적인 셔츠 맞음새 만족도에서는 지각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Jun(2013)의 연구에서 지각 체형에 따라 기성 셔츠의 몸통 부피 및 길이 관련 맞음새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며, 역삼각형 체형과 배나온형 체형은 대부분의 맞음새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근육형과 복부비만형은 전반적으로 착용 불편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복부 부위에서만 나타났다. 다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근육형은 가슴, 어깨 및 겨드랑 부위에서, 복부비만형은 복부 부위에서 착용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보다는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중년 남성의 셔츠 개발 시 지각 체형에 따른 부위별 착용 불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5.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

중년 남성의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지각 체형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leq .05$). 먼저 셔츠 구매 시 사이즈 선택과 관련하여, 온라인 구매 시 사이즈 선택의 어려움과 체형에 맞는 기성 셔츠를 찾기 어렵다는 항목은 복부비만형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

Table 6. Shirt size selection and suitability to perceived body type

Item	Perceived body type				Levene F(p)	Kruskal –Wallis H
	Slim (n = 13) Mean(S.D)	Average (n = 66) Mean(S.D)	Muscular (n = 13) Mean(S.D)	Abdominal obesity(n = 45) Mean(S.D)		
It is difficult to choose the correct shirt size when purchasing shirts online.	2.62(1.26) b	3.42(1.12) b	3.46(1.13) ab	4.00(0.95) a	2.235 (.087)	15.627***
Shirt sizes vary across brands.	3.23(1.17) b	3.85(0.81) ab	4.08(0.64) ab	4.02(0.97) a	1.134 (.338)	8.078*
It is difficult to find ready-to-wear shirts that fit my body shape.	2.54(1.27) b	3.06(1.11) b	3.38(1.26) ab	3.91(1.13) a	.708 (.549)	19.581***
When I choose the correct shirt size for my body shape, the abdominal area is sometimes uncomfortable.	2.31(1.18) b	3.26(1.10) b	3.38(1.33) ab	3.89(0.91) a	2.791 (.043)	19.325***
When I choose a shirt that fits my abdomen, the shoulders or chest often feel too loose.	2.08(0.76) c	3.15(1.10) b	3.00(1.29) abc	3.69(1.10) a	1.845 (.142)	21.145***
I prefer custom-made shirts that fit my body shape.	3.46(1.27) ab	3.48(0.97) b	3.62(1.26) ab	4.20(0.87) a	2.703 (.048)	15.767***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pairwise comparisons with Bonferroni adjustment.
*$p \leq .05$, **$p \leq .01$, ***$p \leq .001$.

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슬림형과 보통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마다 셔츠 사이즈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근육형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복부비만형도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성 셔츠의 사이즈 적합성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셔츠 사이즈를 선택하더라도 복부 부위가 불편하다는 항목과 복부 부위에 맞춰 셔츠 사이즈를 선택하면 어깨나 가슴 부위가 크게 느껴진다는 항목 모두 복부비만형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슬림형과 보통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춤 셔츠 선호도 역시 복부비만형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사후 검정 결과 보통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eong and Yi(2016)는 남성 소비자가 자신의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슴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셔츠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사이즈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n and Lee(2018a)는 셔츠 치수 구분 시 체형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여, 체형을 고려한 셔츠 치수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지각 체형에 따라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형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셔츠 사이즈 체계 및 맞춤형 셔츠 개발 시 소비자가 인식하는 체형에 따른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6. 기성 셔츠 디자인 개선 요구 부위

기성 셔츠 디자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복부 부위가 41.3%(n =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목둘레와 어깨 부위가 각각 15.4%(n = 22), 가슴 부위 14.0%(n = 20), 소매 부위 12.6%(n = 18)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An & Lee, 2018a)에서 기성 드레스셔츠의 맞음새 불만족 부위로 목둘레, 소매길이, 허리·배둘레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목둘레가 복부 다음으로 높은 개선 요구를 보여, 목둘레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셔츠 착용 시 복부 부위의 불편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향후 중년 남성용 기성 셔츠 개발 시 복부를 비롯하여 목둘레 등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부위의 맞음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7. Body areas requiring design improvements in ready-to-wear shirts

Body area	Frequency(N)	Percent(%)
Neck circumference	22	15.4
Shoulder	22	15.4
Chest	20	14.0
Abdomen	59	41.3
Sleeve	18	12.6
Back	2	1.4
Total	143	100.0

4. 결 론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셔츠 착용 및 맞음새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셔츠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35~49세 남성을 대상으로 드레스 셔츠의 착용 실태와 맞음새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령에 따른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 지각 체형 유형에 따른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맞음새 만족도,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성 셔츠에서 개선이 필요한 신체 부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체형을 보통형 또는 복부비만형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체형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위로는 복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셔츠 착용 빈도는 주 3~4회와 주 1~2회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슬림핏과 오버핏보다는 레귤러핏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이 주로 복부의 체형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신체에 밀착되는 디자인보다 적절한 여유량과 착용 편의성을 제공하는 레귤러핏 셔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중년 남성용 셔츠 개발에서는 레귤러핏을 중심으로 복부를 비롯한 체형 특성을 반영한 패턴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착용 불편함 및 맞음새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는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45~49세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5~49세의 중년 남성 집단 내에서는 연령 자체가 신체 부위별 착용 불만족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45~49세 집단에서 전반적인 셔츠 맞음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령에 따른 맞음새 평가 기준이나 선호 등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 체형에 따른 착용 불편함 및 맞음새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에서는 지각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슬림형은 전반적으로 셔츠 착용 시 불편함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근육형은 복부보다 가슴, 어깨 및 겨드랑 부위 등 상체 상부에서 착용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복부비만형은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복부 부

위의 착용 불편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 체형에 따라 특정 신체 부위에서 경험하는 착용 불편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중년 남성용 셔츠 개발 시 여유량 설정, 부위별 맞음새 조정 등 지각 체형에 따라 나타나는 부위별 착용 불편 특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각 체형에 따른 셔츠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복부비만형은 기성 셔츠 구매 시 사이즈 선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부비만형은 복부에 맞추어 사이즈를 선택하면 어깨와 가슴 부위가 크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맞춤 셔츠에 대한 선호도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각 체형에 따라 기성 셔츠의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중년 남성용 셔츠의 사이즈 체계 및 맞춤형 셔츠 개발 시 지각 체형에 따른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기성 셔츠의 디자인 개선 요구 부위를 조사한 결과, 복부 부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둘레, 어깨, 가슴, 소매 순으로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일부 지각 체형에서 복부 부위의 불편함과 사이즈 적합성 관련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중년 남성용 기성 셔츠 개발 시 복부를 비롯하여 목둘레 등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부위의 맞음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과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는 셔츠 착용 평가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에서 나타난 반면,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는 다수의 신체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와 특정 신체 부위에서 경험하는 착용 불편함이 서로 다른 평가 측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두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각 체형에 따라 착용 불편 부위와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중년 남성용 셔츠 개발 시 소비자가 인식하는 체형과 부위별 착용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제 인체계측에 따른 체형 분류가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지각 체형을 기준으로 셔츠 착용 불편함과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에서는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다수의 부위별 착용 불편함과 사이즈 선택 및 적합성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체형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착용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 체형에 따른 부위별 착용 특성을 고려한 셔츠 패턴 설계와 사이즈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35~49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남성 소비자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지각 체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지각 체형과 실제 신체 치수 및 체형 특성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각 체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표 이미지 없이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응답자 간 체형 인식 기준의 차이와 체형 유형 간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셔츠의 패턴 및 여유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실제 착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지각 체형에 따라 나타난 착용 불편함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외관, 여유량 등 맞음새의 세부 평가 영역을 구체화하여 지각 체형에 따른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 체형별 특성과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제 인체계측 자료를 활용한 체형 분류와 지각 체형 간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셔츠 패턴 개발과 다양한 체형을 대상으로 한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패턴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 D.-J., & Lee, J.-Y. (2018a). Survey on the wearing and fit of dress shirts for middle-aged men: Focused on difference according to stature group.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0*(6), 679-689. doi:10.5805/SFTI.2018.20.6.679

An, D. J., & Lee, J. Y. (2018b). Survey on the brand of online custom dress shirts and analysis of the sizing system.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0*(5), 556-568. doi:10.5805/sfti.2018.20.5.556

Cha, S.-J. (2019).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the middle 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4*(4), 137-144. doi:10.9708/jksci.2019.24.04.137

Cho, Y. J. (2005). Clothing preference based on the perceived body typ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0), 155-165.

Go, E. (2026, March, 17). 영포티 잡았다…패션앱 '애슬러' 이례적 급성장 [Captured the young forty market… fashion app 'Astrelle' experiences exceptional rapid growth]. *Hankyung.* Retrieved August 12, 2026, fr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776111

Jun, D. G. (2013). A study on the wearing & purchase practices of shirt and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body typ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4*(4), 471-483. doi:10.7856/kjcls.2013.24.4.471

Kang, J. (2026).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middle-aged identity through the young forty discourse. *Global Cultural Contents, 66*, 1-12. doi:10.32611/jgcc.2026.2.66.1

Kim, D.-H., & Jang, J.-A. (2012).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ences for domestic men's slim-fit dress shirts.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4*(6), 983-991. doi:10.5805/KSCI.2012.14.6.983

Lee, J. H., Jun, J. I., & Choi, K. M. (2013).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body type of adult men in their forties for

automated pattern desig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9*, 325-336. doi:10.21326/ksdt.2013..39.029

Ra, H. J. (2025, December, 27). "영포티라 불리기 싫어"…40대 남성들 돌변하더니 '인기' ["I don't want to be called 'Young Forty'"… men in their 40s change their ways and become popular]. *Hankyung.* Retrieved August 12, 2026, fr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66378i

Ralph-Nearman, C., & Filik, R. (2018). New body scales reveal body dissatisfaction, thin-ideal, and muscularity-ideal in male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2*(4), 740-750. doi:10.1177/1557988318763516

Roh, Y.-K., & Song, H. K. (2017). Effects of real body, perceived body, self discrepancy and body satisfaction on garment fit satisfaction of women in their twenties: Focused on women's jacket.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6), 768-776. doi:10.5805/SFTI.2017.19.6.768

Seong, H., & Yi, K.-H. (2016). Wearing condition & preference of shirts for male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0*(5), 60-75. doi:10.12940/jfb.2016.20.5.60

Seong, O. J., & Kim, S. J. (2020). Building up the foundation for the elderly apparel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n shirt sloper of elderly obese males: Applying CLO 3D progra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8*(3), 299-312. doi:10.29049/rjcc.2020.28.3.299

Suh, C. (2016). Bodice pattern development of the slim-fit dress shirt for middle-aged males using 3D body scanning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0*(1), 171-187. doi:10.5850/jksct.2016.40.1.171

Sung, O. J., & Yang, C. E.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rts pattern for middle aged men`s body sha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1), 1550-1559.

(Received July 21, 2026; 1st Revised August 11, 2026; 2nd Revised August 22, 2026; 3rd Revised August 31, 2026; Accepted September 7, 2026)